

# AI 시대에도 길은 '찾는 사람'에게 열린다

충청일보 | 승인 2026.07.14 15:27

[교육의 눈] 노기섭 홍익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교수

얼마 전 베트남에서 대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특강을 진행할 기회가 있었다. 강의 주제는 'AI는 종교를 대체할 수 있는가?'였지만, 정작 내 마음에 오래 남은 것은 강의 내용보다 그 자리에 모인 청년들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흔히 베트남을 아직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여행에서 만난 청년들은 부족한 환경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한 청년은 캠프에 참석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여섯 시간을 달려왔다. 또 다른 청년은 여덟 시간을 슬리핑 버스에서 보내고 도착했다. 누군가는 하루를 포기했고, 누군가는 적지 않은 교통비를 감수했다. 그들에게 이번 캠프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갈급하고 절실한 가운데 미래를 향한 하나의 기회로 보였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세상은 결국 찾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세계적인 정보기술 강국이 되었고,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생성형 AI는 이제 전문가의 지식까지 몇 초 만에 제공한다. 과거에는 정보를 찾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정보가 오히려 새로운 고민이 되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풍요로움이 반드시 삶의 의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듯하다. 많은 청년은 더 좋은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불안해하고,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한다.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잃어버린 채 방황도 한다. 반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긴 시간을 이동하고, 새로운 배움을 찾아 나서는 청년도 있다. 이번 여행이 베트남 청년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만난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 주었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환경일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는 마음일까? AI 시대에도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생성형 AI는 답을 매우 빠르게 만들어 준다. 하지만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까지 대신 결정해 주지는 못한다. AI는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어도 호기심을 대신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 목표를 제시할 수도 없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대신 품어 줄 수도 없다.

앞으로 AI는 더욱 똑똑해질 것이다. 많은 직업이 바뀌고 공부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AI가 등장하더라도 인간에게 남겨지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 더 나은 삶을 찾으려는 의지일 것이다. 베트남에서 만난 청년들은 내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배우고 찾으려 하는가”일 것이다.

